

Inside F

2007 FEBRUARY

02

격월간 Inside F 제2호 발행일 2007.2.1 퍼낸인 엄을순

사무실 02.3676.3301 팩스 02.3676.3308

홈페이지 <http://www.onlineif.com> 이메일 onlineif@onlineif.com

SPECIAL TALK

눈물속에서 한번 훔쳐 헤엄쳐 보

사람풍경

‘울게 하소서’ 평강공주를 만나다

자기만의 방 2007 히스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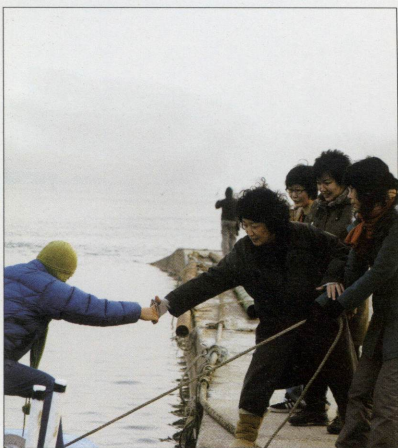
(사)문화미래 이프

이사장	엄을순
사업국장	백진영
기획팀	김수현
홍보팀	선영
경영지원팀	수정
출판부장	권혁란
온라인이프	직원기조 김미영 김소희 우미숙 장보영 한정수
디자이너	허미경
일러스트	신나리
포토디렉터	경은
인쇄	명성인쇄
출판위원회	위원장 유숙렬 위원 김신명숙 김재희 제미란 유채지나
이사회	이사 강성 권혁란 김광원 김신명숙 김명진 김선옥 김세중 김승연 변상욱 엄을순 유숙렬 유채지나 유현숙 오순애 이경희 이숙인 이영란 임나혜숙 장차현실 제미란 최계희 허경서 황오금희
감사	윤숙경 최보문

(사)문화미래 이프 | Inside F

(110-521) 서울시 종로구 명륜1가 72-3 소석빌딩3층
tel 02-3676-3301~3 fax 02-3676-3308
www.onlineif.com

Inside F Inside Female, Inside Feminist
의 줄임말로 IF가 힘겨운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
어가 나를 들여다보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나
누자는 의미입니다.



표지사진 바닷물이 밀려오는 서해바다로 이프녀들이 여행을 왔습니다. 붉은 노을속으로 스며들 듯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이프 선후배의 따뜻한 모습입니다.

CONTENTS

COLUMN	따뜻한 눈물의 바이러스	01
SPECIAL TALK	눈물속에서 한번 훑힐 헤엄쳐 봐 The Descent from the Cross 함께 아픈 눈물	02
사람 풍경	'울게 하소서' 평강공주를 만나다	07
비행일기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08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오늘		09
CULTALK	눈물 흘리는 남자가 아름답다	10
톡 터놓고 톡	피눈물! 흘려봐~씨? 난 해 봐 씨~	12
이프추천물_이혼 그 후	효도하기	13
속닥공론	인류 최초의 신은 여성이었다 - 제2회 북토크쇼 여자는 흰 잉크로 글을 쓴다 무대에 선 여인열전, 이프 후원의 밤	14
참새방앗간	나마스데! 지구별 여행자가 된 콩 변상욱 이사의 몸만들기 프로젝트 이프 새 식구가 드리는 인사	16
자기만의 방 2007 히스테리아		17
러브레터		18

이프의 새로운 스피릿을 소개합니다

Second Life Project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살의 비상구를 찾는 우리를 위하여. 며느리, 아내,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강요받
아왔던 나의 존재가 어쩌면 이리도 주눅 들어 아파했을까? 어쩌면 이리도 외로워했
을까? 그런 삶으로부터 훼손되고 아파서 치유하고 싶었던 나, 나의 삶에 솔직해질
수 없었던 '나'를 이제 버립니다.

오로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잊었던 '나'를 발견하고 내게 오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은 다시 스스로에게 향하는 출발과 같습니다. 목소리로, 몸으로, 카
메라 앵글로, 소리로 드러내며 내안의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나를 치유하고 내안의 영성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여성주의 영성의 힘으로 만나갑시다. 빼적거렸던 나의 삶에 한과 살풀이를 끝내고
기와 기와 깡으로 나를 다시 살피웁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온전한 나는 이 길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 소통하고 구원합니다.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설렘으로 가장 아름
다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주
의 문화창조자로 거듭납니다.